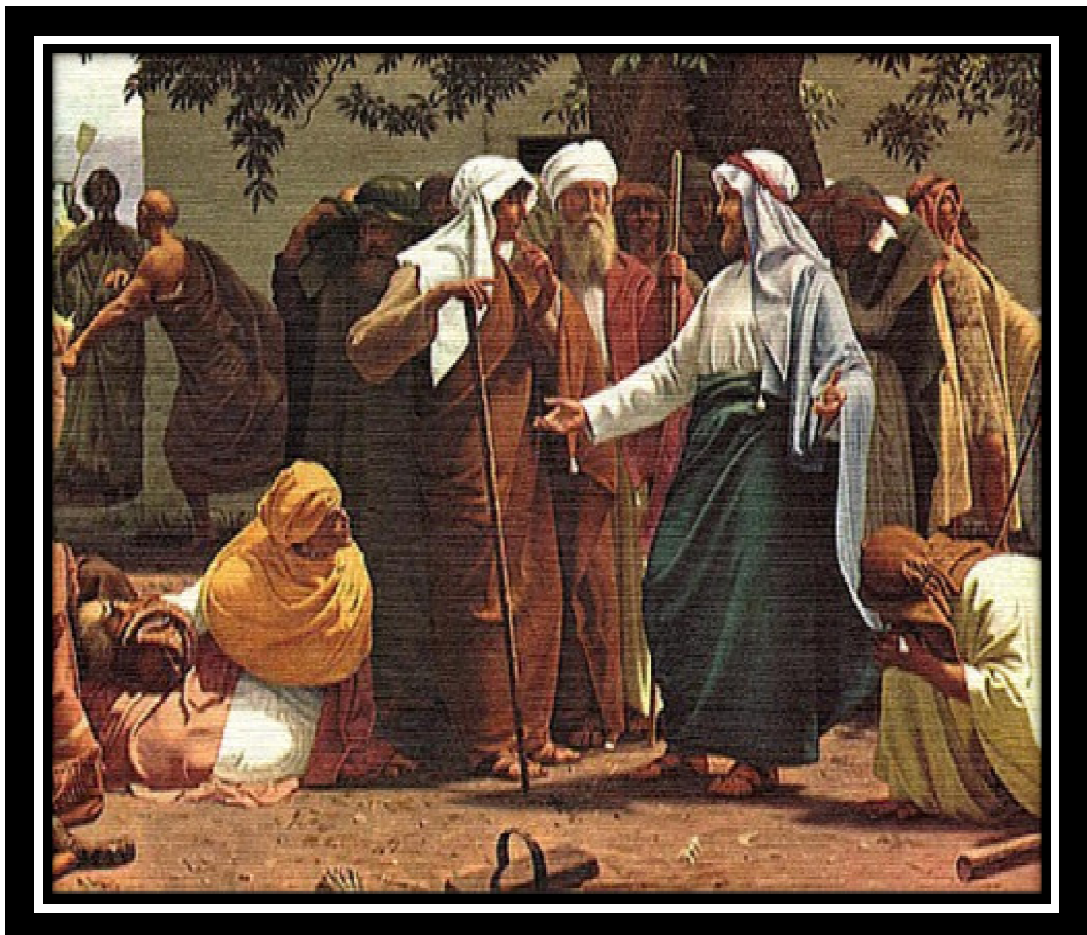


2013 9.08 연중 제 23 주일

제 1 독서 : 지혜서 9,13-18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제 2 독서 : 필레몬서 9 -10.12-17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 받으십시오 .>

복 음 : 루카 14,25-33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와 제 2 독서, 복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특히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누가 탐을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 가는지? 공사를 마칠만한 돈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하지않느냐? 계산을 잘못하면 망하고야 말지 않느냐?

또 전쟁을 하려면 이길수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보고 전쟁에 임하든지? 평화협정을 맺든지 결정을 하여야하지 않느냐? 하시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천주교에 입교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태어난지 사흘만에 세례를 받았고 어머니의 기도로 신부가 되어 사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공동체의 형제자매님들의 대부분도 성인이 되시어 세례를 받고 가톨릭신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신자생활을 시작하면서 잘 끝을 낼수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천주교에 입교를 했는지?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지? 세례를 받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등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과연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착한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과 하나되어 하느님의 사랑안에서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의 목적과 그끝을 어디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부단히 추구해 나가면서 산다면, 성스럽게 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일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과는 한없이 멀어져만 갈것입니다. 요즘 뉴스에는 시리아 사태가 큰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녕을 희생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볼리비아를 다녀 오면서 많은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저의 사제생활을 돌아보며 이번에 맞는 안식년 3 개월 동안을 새로운 사제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신부로서의 사제생활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신부가 되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신부가 되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61 세의 나이로 한 형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 목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더이상 치유를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형제분은 매일미사를 빠지지않고 참례하시고, 교리교육교사로서 봉사를 하셨으며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몸을 닦아드리는 일을 하시다가 위암에 걸려 다른 분들보다도

일찍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통은 사제들이 주일에 병자성사를 가지 않는데 지난주일 미사를 마치고 이분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분은 며칠후에 돌아가실줄을 알면서도 사제인 저에게 성체를 영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한 살아계신 성인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의 죽음과 형의 죽음을 맛보았기때문인지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죽기전에 몸이 불편하게 될까보아, 또는 대죄중에 있지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가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죽음앞에서 보람되게 살았다고 생각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인간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

배 신부님의 강론집에서 신부님께서 “자진해서 자기자신을 이기는 사람만이 올바른 가치관을 행사하며 구원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내가 내마음가는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내의지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하느님의 의지에 내 마음을 맞추며 부단히 내자신을 바꾸고 교육시키며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사중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 하였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지금나는 어디쯤 와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9,13-18

13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4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15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16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17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18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으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9 ~ 10.12-17

사랑하는 그대여, 9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10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2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13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종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14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6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17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5-33

그때에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